40년 염원, 조계종 총본산 일주문 '활짝'

5월 28일 '동양금박' 철거 기념식
진우 스님 "희망 등불 공간 되길"
현근 스님·지현 스님 공로패 수여
"성역화 불사 완수" 다짐도 이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조계사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 빌딩이 철거되며 조계종 총본산 일주문 앞이 40년 만에 활짝 열렸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 빌딩이 철거되며 조계종 총본산 일주문 앞이 40년 만에 활짝 열렸다. 한국불교 대표 도량 조계사의 입구가 활짝 열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됨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사는 5월 28일 일주문에서 '동양금박 철거 기념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대작불사의 원만 성취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스님은 "조계사 일주문은 부처님 도량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얼굴"이라며 조계사 일주문이 장엄한 모습을 환히 드러내는 데 원력을 쏟아준 스님과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계사는 앞으로도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근본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동양금박 건물의 철거에 기쁨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동양금박 건물은 수십 년의 시간 조계사 일주문 일부 경관을 가리며 총본산 조계사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리는 장애물이며 동시에 조계종 총무원에도 큰 그림자였다"면서 "마침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조계사의 사격을 일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조계사는 국민들과 신도들에게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공간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동양금박 불사에 헌신한 공로로 전 조계사 주지인 서울 봉국사 회주 현근 스님과 안동 임강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현장에서는 함께한 신도들이 박수로 기쁨을 나눠 훈훈함을 더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역대 주지 스님들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조계사가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이 되고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날"이라며 "스님들의 원력과 신도들의 실천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축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도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은 끝에 동양금박을 철거하게 된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해체하는 일이 아니라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뜻깊은 결실을 맺는 일이며, 조계사와 종단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수년간 동양금박 건물 매입을 위한 신도들의 모연을 이끌어 온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 총회장은 신도회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계사 신도회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 완수를 사명으로 종단과 조계사의 미래에 항상 함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박영환 조계사 신도회 자문위원장도 "무량 공덕의 인연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거룩한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자 쉬지 않고 정진하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 "국가유산 정책, 유형 비율 살펴야"

대선 정책 자료집 발간해
이재명·김문수 후보 전달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골자로 한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특히 태고종은 국가유산 유형별 예산, 조직 구성의 편중성을 지적하며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 총무원은 5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2025 국민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각각 전달하고,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자료집에는 △사찰 중심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납골당 규제 완화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확대 △불교문화유산 보존 지원 활성화 △공공기관 종교편향 방지 △영산재 국내외 초청공연 정례화 및 예산 확보 △종교문화행사 지원 강화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 등의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태고종은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을 통해 특정 유형 종목에서 이뤄지는 인사·예산·조직 구성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이 제안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사찰 기반 노인복지 모델이다. 태고종은 "사찰은 전통적으로 고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 기도, 쉼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해왔다"면서 "사찰 실버스테이는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결합한 새로운 복지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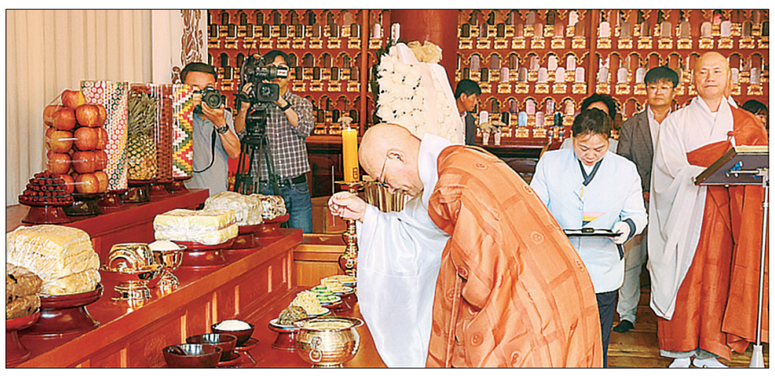
납골당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5000기로 제한된 사찰 납골당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해 국민들의 장례문화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은 "납골당 규제 제한은 사찰이 수행하는 신행 및 국민의 종교문화적 수요를 반영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고령화 삼화와 다양한 장례문화 수요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태고종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해외공연과 전승관 건립 등 보존 관련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신중일 기자

"지혜 불 밝힌 도의 국사 가르침, 우리 사회 정신 중심"

조계종, 5월 28일 도의 국사 다례재
"수행 전통, 미래 천년의 대원 실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에서 헌향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시원인 도의 국사(道義國師)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풍을 선양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각 포교신도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도의 국사는 이 땅에 전등의 당간지주를 세워 도업(道業)이 번창하고 법계가 윤택하도록 했다"면서 "국사께서 전한 법등은 육조와 임제의 현지를 참구하는 선문이 골골에 열리게 했으며 견성의 길이 열려 눈 밝은 선지식이 배출되고 조등(祖燈)은 더욱 밝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두가 국사가 전등을 통해 베푼 법익(法益)이며 공덕(功德)"이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도의 국사는 중원 선법의 정맥을 계승해 이 땅 해동에 지혜의 불을 밝혔고 그 등불은 단지 당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식들이 시대를 넘어 출현한 인재불사의 토대가 됐다"면서 "가르침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기를 찾는 길에 나섰고 그 길은 곧 우리 삶의 방향이자 사회의 정신적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선명상 수행법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와 깊은 번뇌 앞에 서 있고 총체적 위기를 넘기 위해 근본으로 돌아가 선의 정신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서 "선명상 수행법은 모든 이가 스스로 마음을 밝히며 자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수행문화를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종조가 남긴 위대한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며, 미래 천년을 향한 길을 여는 대원(大願) 실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1941년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태고사법'에서 명시한 도의 국사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맞춰 매년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상월원각대조사 가르침 잊지 말자"

천태종, 51주기 열반대재
5월 24일 구인사 광명전서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종단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1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법석을 마련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5월 2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51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종정 도용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분별 망상을 떠나 발심하여 일심청정 해탈의 길을 교시하신 대조사의 가르침을 따르며 중생교화의 원력을 받들어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도하자"며 "눈과 서리에도 불변하는 잣나무를 심으신 깊은 뜻을 새기어 성불의 서원 다짐하며 다만 일심으로 용맹정진하기 바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는 물질적 구원은 국가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마음의 구제는 불교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청정한 참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탐욕이 없으며 갈등과 투쟁이 없다.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인 개인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청정한 마음자리를 지켜 나가는 공부에 매진하면 사회의 불안과 국가적 난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